

### 322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 357장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1)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2) 온 인류 마귀 궤환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3) 끝까지 이긴 자에게 환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후렴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2월 8일(토) 기도 담당 : 전해용 집사

2018년 12월 7일(금)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322장 .....	다같이
기도 .....	김방현 집사	
성경봉독 .....	시편 125편 1~5절 .....	인도자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 .....	박세훈 목사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같이
찬송 .....	357장 .....	다같이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 시 125:1~5 >

-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 3)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 4)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 5)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2월 7일(금)

### 온 땅의 주인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의 시작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행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더욱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바라고 믿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하나되게 하옵소서.

###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131년의 긴 시간동안 은혜 가운데 돌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은혜 그대로 완공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건축의 전 과정을 이끌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영 안에서 주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건물이 지어져가는 과정과 함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역사 허락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섬기는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뜻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돌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 민족 지도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가진 권력과 힘으로 도리어 베풀며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온전히 펼쳐주셔서 남북의 땅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날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복음으로만 소망을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선교지를 섬기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치유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